

유란시아서

<< [제 131 편](#) | [부분](#) | [내용](#) | [제 133 편](#) >>

제 132 편

로마에서 머무르는 동안

132:0.1 (1455.1) **고노드**가 인도의 영주들로부터 인사장을 **로마**의 통치자 **티베리우스**에게 가지고 갔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한 뒤 사흘째에 두 인도인과 **예수**는 그 앞에 나타났다. 시무룩하던 황제는 이날 특별히 명랑했고 세 사람과 오랫동안 잡담을 나누었다. 그들이 앞에서 사라졌을 때, 황제는 **예수**를 언급하면서 바른 쪽에 서 있던 보좌관에게 한 마디 던졌다: “저 친구의 임금다운 태도와 품위 있는 예절을 가졌다면, 내가 진짜 황제가 될 터인데, 응?”

132:0.2 (1455.2) **로마**에 있으면서, **가니드**는 공부하고 도시 근처에 흥미 있는 장소들을 찾아보는 데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는 처리할 업무가 많았다. 아들이 자라서 광대한 상업 이권을 관리하는 훌륭한 후계자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는 소년에게 사업 세계의 기초를 가르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로마**에는 인도 시민이 많이 있었고, 바로 **고노드**의 고용자 중에서 한 사람이 흔히 통역으로서 따라가곤 해서, **예수**는 하루 종일 혼자서 지내곤 하였다. 이것은 2백만 주민이 사는 이 도시를 샅샅이 눈에 익힐 시간을 주었다. 그는

포럼에서 자주 눈에 띄게 되었는데, 여기는 정치와 법률과 사업 생활의 중심이었다. 그는 자주 **카피톨리움**으로 올라갔고, **주피터 · 주노 · 미네르바**를 모시는 이 웅장한 신전(神殿)을 바라보는 동안, 이 **로마** 사람들이 무지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또한 **팔라틴** 언덕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거기에는 황제의 저택, **아폴로** 신전과 **그리스** 및 **라틴** 도서관들이 있었다.

132:0.3 (1455.3) 이때에 **로마** 제국은 **유럽** 남부, 소 **아시아**, **시리아**, **에집트**, 북서 **아프리카**를 모두 포함했다. 그 거주민은 동반구의 모든 국가의 시민을 포함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유란시아** 필사자 집단에 대하여 공부하고 함께 어울리려는 소망이 **예수**가 이 여행을 하는 데 찬성한 주요한 이유였다.

132:0.4 (1455.4) **로마**에 있는 동안 **예수**는 사람들에 관하여 많이 배웠지만, 그 도시에서 여섯 달 머무르는 동안에 얻은 다양한 모든 체험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제국의 수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접촉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었다. **로마**에서 첫 주말이 되기 전에, **예수**는 견유학파, 금욕주의파, 신비 종파, 특히 **미트라** 집단에서, 쓸 만한 지도자들을 수소문하고 얼굴을 익혔다. **유대인**이 그의 사명을 거부하리라는 것이 명백했든 그렇지 않았든, 하늘나라를 선포하려고 사자(使者)들이 곧 **로마**로 올 것을 **예수**는 아주 확실히 내다보았다. 따라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더 낫게, 더 확실히 받아들여지도록 길을 예비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는 으뜸가는 금욕주의자 다섯 명, 견유학파 열한 명, 신비 종파 지도자 열 여섯 명을 골랐고 거의 여섯 달 동안, 남은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 종교 선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지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한 번도 그들의 잘못을 공격하거나 가르침에 있는 결점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경우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진실을 고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머리 속에서 이 진실을 돋보이게 하고 비추어서, 아주 짧은 동안에 이렇게 향상된 진실은 관련된 잘못을 실질적으로 밀어 냈다. **예수**가 가르친 이 남녀들은 이렇게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가르침 속에서 추가된 비슷한 진리를 후일에 깨닫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복음 전도자들의 가르침을 바로 이렇게 일찍 받아들인 것은 **로마**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제국 전역에 걸쳐 기독교가 급히 퍼지도록 힘차게 추진력을 주었다.

132:0.5 (1456.1) **로마**에서 **예수**가 가르친 이 종교 지도자 32명의 무리에서 겨우 두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할 때, 이 놀라운 행적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30인은 **로마**에서 기독교를 세우는 주축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더러는 또한 으뜸가는 **미트라** 성전을 그 도시의 첫 기독교 교회로 바꾸는 일에 협조하였다. 장면 뒤에서, 그리고 1천 9백 년의 세월에 비추어 인간의 활동을 바라보는 우리는 **유럽**에 두루 기독교가 급속히 전파되게 만든 무대의 초기 배경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꼭 세 가지 요인을 인정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132:0.6 (1456.2) 1. **시몬 베드로**를 사도로 고르고 붙들어 둔 것.

132:0.7 (1456.3) 2. **예루살렘**에서 **스테반**과 이야기한 것. 그의 죽음은 **타르수스의 사울**의 지지를 얻도록 이끌었다.

132:0.8 (1456.4) 3. **로마**에서, 그리고 제국 전역에서 후일에 새로운 종교를 주도하도록 이 **로마인** 30명을 미리 예비한 것.

132:0.9 (1456.5) **스테반**이나 선택된 30인도 그들의 모든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종교적 가르침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다. 최초의 32인을 위하여

예수가 한 일은 전부 직접 만나서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다마스쿠스** 서기관은 한 번에 세 명을 넘게 만나지 않았고 두 명을 넘게 만나는 일이 드물었으며, 한편 이들을 하나씩 가르친 적이 가장 많았다. 이 남녀들이 전통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훈련을 시키는 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이들은 모든 앞날의 종교 발전에 관하여 굳어진 선입견에 물든 사람들이 아니었다.

132:0.10 (1456.6) 곧 뒤잇는 여러 해 동안,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로마**에 있던 다른 기독교 선생들은 이 **다마스쿠스** 서기관에 관하여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그들보다 먼저였고 (눈치 채지 못하고 상상한 바와 같이) 그들이 새 복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위하여 길을 예비한 것이 아주 분명했다. **바울**은 결코 이 **다마스쿠스** 서기관의 신분을 정말로 추측하지 못했지만 죽기 조금 전에, 인물 묘사가 비슷했기 때문에, “**안티옥**의 천막 만드는 사람”은 또한 “**다마스쿠스의 서기관**”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어느 때 한 번 **로마**에서 설교하는 동안, **시몬 베드로**는 **다마스쿠스** 서기관의 인물 묘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였을지 모른다고 추측했지만 주가 **로마**에 계신 적이 없었음을 잘 알았으므로 (그렇게 생각했다) 재빨리 그 생각을 떨쳐 버렸다.

1. 참된 가치

132:1.1 (1456.7) **로마**에서 머무르던 기간의 초기에, **예수**는 금욕주의파의 지도자 **앙가몬**과 함께 밤이 새도록 이야기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바울**과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로마**에서 기독교 교회의 강력한 지지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 현대의 말투로 다시 표현하면, **예수가 앙가몬에게 가르친 내용은 이렇다:**

132:1.2 (1457.1) 참된 가치의 기준은 영적 세계에서, 영원한 실체의 신성한 수준에서 찾아야 한다. 하늘 가는 필사자에게 이보다 낮은 물질적 기준은 모두 일시적 · 부분적이며 열등한 것을 인식해야 한다.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여러 물질적 사실이 관계된 것을 발견하는 데 국한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과학자는 자기가 유물론자나 이상주의자라고 주장할 아무 권리가 없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려는 모든 주장이 철학의 바로 그 핵심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면서 감히 참된 과학자의 태도를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132:1.3 (1457.2) 필사자의 통찰력과 인류의 영적 달성이 정비례하여 커지지 않으면, 순전히 물질적 문화가 한없이 진보하는 것은 궁극에 문명에 위협이 된다. 순전히 물질적인 과학은 그 속에 모든 과학적 노력을 파괴하는 잠재 씨앗을 품고 있다. 바로 이 태도가, 도덕적 가치를 느끼는 감각을 포기하고 영적 달성의 목표를 거부한 문명이 궁극에 붕괴한다는 것을 예시하기 때문이다.

132:1.4 (1457.3) 유물론적 과학자와 극단적 이상주의자는 언제나 다투게 되어 있다. 높은 도덕적 가치관과 영적 시험 수준, 공통된 기준을 소유한 과학자와 이상주의자는 그렇지 않다. 각 시대에 과학자와 종교인은 인간의 필요라는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의 진보에 봉사하는 데 더 낮게 헌신함으로써 그들의 계속된 생존을 정당화하려고 용감하게 싸우는 한편, 자기들 사이에 어떤 투쟁도 피해야 한다. 어느 시대에도 이른바 과학이나 종교가 거짓되다면, 그들은 그 활동을 정화(淨化)하든지, 아니면 더 참되고 더

가치 있는 체제의 물질 과학이나 영적 종교가 탄생하기 전에 사라져야 한다.

2. 선과 악

132:2.1 (1457.4) **마르두스**는 로마의 견유학파에서 인정받은 지도자였고, **다마스커스** 서기관과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는 날마다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마다 **예수**의 고귀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마르두스**와 가진 비교적 중요한 토론 가운데, 선과 악에 관하여 이 진지한 견유학자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고안된 것이 하나 있다. 내용으로 보아서, 20세기의 표현을 쓰자면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132:2.2 (1457.5) 아우여, 선과 악은 다만 관측할 수 있는 우주를 인간이 이해하는 그 상대적 수준을 가리키는 낱말일 뿐이다. 네가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고 사회에 무관심하면, 통용되는 사회 관습을 네 선(善)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도덕적 진취성이 없으면,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적 관습과 전통을 네 선의 기준으로 가져도 좋다. 그러나 시간 세계에서 살아남고 영원으로 태어나는 혼은 그러한 선과 악 사이에 현실적으로 몸소 선택해야 하며, 선과 악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살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낸 신다운 영이 세워 놓은 영적 기준의 참된 가치관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에게 깃드는 이 영은 인격이 살아남는가를 정하는 기준이다.

132:2.3 (1457.6) 진실과 마찬가지로, 선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어김없이 악과 반대가 된다. 선과 진실의 이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사람의

성장하는 혼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아남는 데 필수인 결정, 몸소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게 한다.

132:2.4 (1458.1) 과학의 명령과 사회의 관습과 종교의 독단(獨斷)을 논리적으로 따르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도덕적 자유를 희생하고 영적 해방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험과 마주친다. 그러한 혼은 지적(知的) 앵무새가 되고 사회적 자동 인형이 되고 종교적 권한에 노예가 되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다.

132:2.5 (1458.2) 도덕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영적 인격을 달성하는 — 깃드는 **조절자**를 발견하고 그와 한 편이 되는 — 자유가 늘어나는 새 수준을 향하여, 선은 언제나 자라고 있다.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감각을 높이고 도덕적 의지를 키우며, 진실을 헤아리는 눈을 높이고, 동료들 사랑하고 섬길 능력을 키우며, 영적 이상을 높이고 시간 세계에서 최고의 인간다운 동기를 깃드는 **조절자**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가 되게 만들 때, 경험은 선하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려는 소망이 커지도록 직접 인도하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내고 더욱 그와 같이 되려는 신성한 열정을 길러준다.

132:2.6 (1458.3) 인간이 발전하는 우주 눈금을 올라감에 따라서, 선을 체험하고 진실을 헤아리는 능력과 완전히 발걸음을 맞추어, 너는 선이 커지고 악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늘 가는 인간의 혼이 마지막 영 수준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마음에 품거나 악한 것을 체험하는 능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32:2.7 (1458.4) 선(善)은 생생하고 상대적이고 언제나 진보하는 체험, 변함없이 몸소 겪는 체험이며, 진실과 아름다움을 헤아리는 것과 언제까지나 서로 연결된다. 선은 영적 수준에서 긍정적 진실과 가치를

인식하는 데서 발견되며, 이것은 인간의 체험에서 그 반대에 해당하는 개념 — 잠재 악의 그림자 — 와 대조되어야 한다.

132:2.8 (1458.5) **파라다이스** 수준에 이를 때까지, 선은 언제나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이요, 달성하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目標)일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을 간절히 목마르게 찾더라도, 너는 선을 부분적으로 달성하는 데 더욱 만족을 느낀다. 세상에 선과 악이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사람의 도덕적 의지, 즉 인격이 존재하고 실재한다는 분명한 증명이며, 인격은 이러한 선악의 가치를 확인하고 또한 그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

132:2.9 (1458.6) **파라다이스**에 이를 때가 되면, 하늘 가는 필사자가 참된 영 가치와 일체가 되는 능력이 아주 커져서 생명의 빛을 완전히 소유하는 결과를 낳는다. 완전해진 그러한 영 인격은 긍정적이고 최상질의 선 · 아름다움 · 진실과 아주 온전히 신성하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무한한 **파라다이스** 통치자들의 빛, 사람을 살피는 신성한 광원의 빛에 노출되었을 때, 그러한 올바른 영은 악의 잠재성을 가진 어떤 부정적 그림자라도 던질 가능성이 전혀 남지 않는다. 모든 그러한 영 인격 안에서 선은 이제 더, 부분적이고 반대이고 상대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선은 신답게 완성되었고 영적으로 충만하다. 선은 **최상위**의 순수함과 완전함에 가까이 간다.

132:2.10 (1458.7) 악의 가능성은 도덕적 선택에 필요하지만, 악이 현실이 될 필요는 없다. 그림자는 오직 상대적으로 실재한다. 현실로 나타나는 악은 개인의 체험이 될 필요가 없다. 악의 잠재성은 영적 발전이 낮은 수준에 있을 때, 도덕적으로 진보하는 영역에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자극으로서 똑같이 효력이 있다. 오로지 한 필사 지성이 악한 것을 선택할 때 악은 몸소 체험하는 현실이 된다.

3. 진실과 믿음

132:3.1 (1459.1) **나본은** 그리스계 유대인이요, 로마에서 주요 신비 종파 **미트라교**에서 으뜸가는 지도자였다. **미트라교**의 이 대사제는 **다마스쿠스** 서기관과 많은 회담을 가졌지만, 어느 날 저녁에 진실과 믿음에 관하여 가졌던 토론에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받았다. **나본은** **예수**를 개종시키려고 생각하였고 그에게 **미트라교** 선생으로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라고 제안까지 하였다. 하늘나라 복음으로 초기에 개종(改宗)한 사람들 속에 속하도록 **예수**가 그를 준비시키고 있음을 그는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현대의 말투를 빌려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가르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2:3.2 (1459.2) 진실은 말이 아니라, 오직 실천함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진실은 반드시 지식보다 더한 것이다. 지식은 지켜본 사물에 관한 것이지만, 진실이 지혜와 사귀고, 인간의 체험, 아니 영적이고 생생한 실체들과 같이 저울질할 수 없는 것을 담기 때문에, 진실은 그렇게 순전한 물질 수준을 초월한다. 지식은 과학에서 비롯하며, 지혜는 참된 철학에서, 진실은 영적으로 사는 종교적 체험에서 비롯한다. 지식은 사실을 다루고, 지혜는 관계를, 진실은 실체의 가치관을 다룬다.

132:3.3 (1459.3) 사람은 과학을 구체화하고 철학을 형식으로 만들고 진실을 교리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람이 진보적 생활 투쟁에 적응하는 데 정신적으로 게으르고 한편 또한 미지의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연인은 생각하는 버릇과 생활 기법을 바꾸는 데 느리다.

132:3.4 (1459.4) 계시된 진실, 몸소 발견한 진실은 인간의 혼이 얻는 최고의 기쁨이다. 이는 물질 지성과 깃드는 영이 합동으로 창조한 것이다. 진실을 분별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혼이 영원히 구원 받는 것은 선을 간절히 바라고 목마르게 찾음으로 보장되며,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개발하도록 이 필사자를 인도한다.** 참된 지식과 진실 사이에는 결코 갈등이 없다. 지식, 그리고 인간의 관념, 편견으로 물들고 두려움으로 왜곡되고 물질적 발견이나 영적 진보와 같은 새로운 사실에 직면하는 두려움에 지배된 관념 사이에 갈등이 있을지 모른다.

132:3.5 (1459.5) 그러나 믿음을 실천하지 않고서 진실은 결코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참말이니, 사람의 생각 · 지혜 · 윤리 · 이상은 그의 믿음, 숭고한 소망보다 결코 더 높이 솟아오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그러한 참된 믿음은 깊은 반성(反省), 진지한 자기 비평, 굽히지 않는 도덕 의식에 근거를 둔다. 믿음은 영의 영향을 받은 창조적 상상력이 주는 영감이다.

132:3.6 (1459.6) 믿음은 신성한 불꽃, 곧 불멸하는 씨눈의 초인간적 활동을 해방하도록 작용하고, 그 씨눈은 사람의 지성 속에서 살며 이것이 영원히 살아남을 잠재성이다. 식물과 동물은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 자체와 동일한 다른 입자(粒子)들을 전하는 방법으로 시간 세계에서 살아남는다. 사람의 혼(인격)은 깃드는 이 신성의 불꽃과 신분을 연합함으로 필사자의 죽음을 견디고 살아남는다. 그 불꽃은 불멸하며 또 계속되는 상급 수준의 진취적 우주 생활에서 인격을 영속(永續)시키도록 작용한다. 인간의 혼에 감추어진 씨앗은 불사의 영이다. 혼의 둘째 세대는, 진보하는 영적 존재들의 인격이 명시되는 순서에서 처음이요, 이 순서는 오직 이 신다운 개체가 그 존재의 근원,

모든 존재의 성격 근원인 **하나님**, **우주의 아버지**께 이르렀을 때에야 끝난다.

132:3.7 (1459.7) 인간의 생명은 이어진다 — 살아남는다. 그 생명이 우주 기능, 곧 **하나님**을 찾아내는 과제를 가졌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활기를 얻은 사람의 혼은 이 운명의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멈출 수 없다. 이 신성한 목표를 일단 이룩하면, 결코 그칠 수 없으니, 그 혼이 **하나님**처럼 — 영원하게 — 되었기 때문이다.

132:3.8 (1460.1) 영적 진화는 갈수록 더 자진해서 선을 선택하는 체험이며, 여기에는 똑같이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의 점진적 감소(減少)가 뒤따른다. 선을 택하는 결의, 진실을 이해하는 완벽해진 능력을 얻는 것과 함께 완전한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생기게 되며, 이 두 가지의 올바름은 잠재 악의 개념이 솟아날 가능성조차 영원히 억제한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혼은 신다운 선의 그러한 높은 영 수준에서 활동할 때, 의심하는 악의 그림자를 조금도 던지지 않는다.

132:3.9 (1460.2) 사람의 지성 속에 **파라다이스** 영이 계신 것은 **우주의 아버지**의 불멸하는 이 깃드는 영 조각과 같은 신분이 되려고 애쓰는 모든 혼에게, 신답게 진보함으로 하나의 영원한 존재를 계시하는 약속이요, 믿음의 서약이다.

132:3.10 (1460.3) 사람이 우주에서 진보하는 것은 인격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그 진보가 점점 더 높아지는 수준에서 자아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자진하여 자제력을 점진적으로 얻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완전한 영적 자제에 도달하는 것은 우주에서 자유를 얻고 인격의 해방을 성취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광대한 우주에서 사람이 초기에 적응하는 혼란의 와중에서, 믿음은 사람의 혼을 육성하고 유지한다. 한편 기도(祈禱)는 창조적 상상력으로부터

얻는 다채로운 영감, 그리고 깃들고 관련된 신성한 계심의 영적 이상과 발걸음을 맞추려고 애쓰는 혼의 신앙 욕구, 이 두 가지를 통일하는 좋은 약이 된다.

132:3.11 (1460.4) **예수**와 이야기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나본**은 이 말씀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이 진리는 가슴 속에서 줄곧 타올랐고, 그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나중에 도착한 전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4. 개인적 봉사

132:4.1 (1460.5) **예수**는 **로마**에 있는 동안, 다가오는 하늘나라에서 앞날에 제자가 되도록 남녀들을 준비시키는 이 일에만 여가를 전부 쓰지는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국제적인 이 도시에 사는 온갖 종족과 계급의 사람들에 관하여 피부로 지식을 얻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수많은 인간과 접촉할 때마다 **예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육체를 입고 사는 인생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배우고 싶어 했고 또한 그 인생을 더욱 풍부하고 가치 있게 만들려고 무언가 말씀하거나 행할 생각을 가졌다. 이 몇 주 동안의 종교적 가르침은 열두 사람의 선생으로서, 그리고 군중에게 설교자로서 그의 후기 생애의 특징을 나타냈던 가르침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132:4.2 (1460.6) 언제나 그가 전하는 말씀의 요점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사실이요 그의 자비가 진실이라는 것이었고, 아울러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에게 믿음의 아들이 된다는 좋은 소식이었다. **예수**가 사회적 접촉을 가질 때 쓰는 보통 기술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그들을 끌어내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 회견은 보통 그가

질문을 던져 시작되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함으로 끝나곤 했다. 그는 묻거나 질문에 대답함으로 가르치는 데 똑같이 솜씨가 있었다. 대체로, 가장 많이 가르친 자에게 말을 매우 적게 하였다. 몸소 베푸는 봉사로 가장 많이 이익을 얻은 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하며 풀이 죽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큰 위안을 얻은 것은 동정심과 이해심으로, 말을 듣는 사람에게 자기 혼의 짐을 내려놓을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사람이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 이 인간들이 **예수**에게 걱정거리를 이야기했을 때, 언제나 그들의 진정한 어려움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이고 즉시 도움되는 충고를 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수**는 당장 희망을 주는 말과 즉시 위안이 되는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어김없이, 곤궁에 빠진 이 필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일러주고, 다양한 여러 방법으로, 그들이 하늘에 계신 이 인자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소식을 나누어 주곤 했다.

132:4.3 (1461.1) 이 방법으로, **로마**에 머무르는 동안, **예수**는 이 땅에서 5백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친히 애정이 넘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인류의 다른 종족들에 대한 지식, **예루살렘**에서는 결코, 아니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지식을 얻었다. 그는 땅에서 살았던 어떤 비슷한 기간보다도 언제나 이 여섯 달을 가장 값지고 견문을 넓힌 시절 중의 하나로 여겼다.

132:4.4 (1461.2) 아마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능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세계의 대도시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근하지 않고 6개월이나 이렇게 활동할 수 없다. 이들은 어떤 사업에 연관되어, 또는 더 흔히 어떤 교육이나 사회 개혁이나 종교 운동 계획을 위하여 그가 봉사하겠다는 보장을 얻으려 했다. 그러한 제안이 열두 번도 더

있었는데, 적절한 말씀을 하거나 어떤 정중한 봉사를 베풀어, 각 제안을 영적으로 고귀한 어떤 생각을 나누어 주는 기회로 이용했다. **예수**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 작은 일까지도 — 무척 좋아하였다.

132:4.5 (1461.3) 그는 정치와 정치 정신에 대하여 **로마**의 어느 상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수**와 한 번 이렇게 접촉한 것은 이 입법가에게 무척 감명을 주었고, 그래서 그는 정부가 사람들을 지원하고 부양하는 관념으로부터 사람들이 정부를 지원하는 관념으로 통치 정책 과정을 바꾸려고 동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헛되이 애쓰면서 여생을 보냈다. **예수**는 하루 저녁을 어느 부유한 노예 소유자와 함께 보냈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하여 말씀했다. 이튿날 이 사람, **클라우디우스**는 노예 117명에게 자유를 주었다. 정찬에 어느 **그리스인** 의사와 환담하였다. 환자들은 육체만 아니라 정신과 혼을 가졌다고 알려주었고, 이렇게 이 유능한 의사가 더욱 원대한 봉사를 동료 인간에게 베풀려고 애쓰게 만들었다. 그는 인생에서 온갖 직업을 가진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로마**에서 그가 찾아보지 않은 유일한 곳은 공동 목욕탕이었다. 거기에는 난잡한 성(性) 관습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는 목욕탕에 친구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132:4.6 (1461.4) **티버** 강을 따라 걸으면서, 그는 어느 **로마** 군인에게 말했다: “손만 아니라 마음도 용감할지어다. 감히 정의(正義)를 행하고, 관대하여 자비를 보이라. 네가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너의 낮은 성품이 높은 성품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라. 선을 존경하고 진실을 높이라. 더러운 것 대신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라. 동료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을지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임이라.”

132:4.7 (1461.5) 포럼에서 그는 연사(演士)에게 말했다: “너의 웅변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논리는 칭찬 받을 만하며 목소리는 듣기 좋구나. 그러나 너의 가르침은 도저히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영적 **아버지**임을 아는, 힘이 솟게 하는 만족감을 네가 즐길 수만 있다면 어둠의 사슬에서, 그리고 무지의 노예 상태에서 동료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네 말솜씨를 사용해도 좋으리라.” 이 사람은 **로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후계자가 된 **마커스**였다.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박았을 때, 바로 이 사람이 **로마**의 박해자들에게 대항하고 용감하게 새 복음을 계속 전도하였다.

132:4.8 (1462.1) 억울하게 고발당한 어느 가난한 사람을 만나고서, **예수**는 함께 판사 앞으로 갔다. 그를 위하여 변론하도록 특별 허락을 얻고서 훌륭하게 연설했으며, 그 과정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정의(正義)는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며, 나라가 위대할수록 가장 비천한 시민도 부당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처리하려고 더욱 애쓸 것이다. 어떤 나라라도 오직 돈과 권력 있는 자가 법정 앞에서 신속하게 정의를 얻을 수 있다면 한탄이 있을진저! 죄 있는 자를 벌하는 것뿐 아니라 무죄한 자를 놓아주는 것이 판사의 신성한 임무이나이다. 나라가 오래 가는 것은 법정이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건전함에 달려 있나이다. 참된 종교가 자비에 기초를 두는 것 같이 국가의 정부는 정의에 기초를 두나이다.” 그 판사는 소송 사례를 다시 열고 증거를 샅샅이 조사한 뒤에, 그 죄수를 풀어주었다.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이 기간에 **예수**가 한 모든 활동 중에 이것이 대중 앞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5. 부자에게 조언을 주다

132:5.1 (1462.2) **로마** 시민이요 금욕주의자인 어떤 부자가 **앙가몬**의 소개를 받고서 **예수**의 가르침에 크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여러 번 친밀한 회담을 가진 뒤에 이 부유한 시민은 **예수**가 재산을 가졌다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물었고 **예수**는 대답했다: “지적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고 사회 생활을 고귀하게 만들고 영적 생활의 진보를 위하여 내가 지식과 지혜와 영적 봉사를 베풀고자 하는 것 같이, 나는 물질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질 재산을 사용하리라. 한 세대의 자원의 지혜롭고 효과 있는 관리자로서 다음에 뒤잇는 세대들의 이익과 품위를 위하여 물질 재산을 관리하겠노라.”

132:5.2 (1462.3) 그러나 그 부자(富者)는 **예수**의 대답에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다. 다시 대담하게 물었다: “그러나 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이까? 재산을 간직하리이까 아니면 남에게 주어야 하리이까?” **하나님**께 바치는 충성과 사람에 대한 의무에 관하여 그가 진실을 정말로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을 파악했을 때, **예수**는 이어서 대답했다: “선한 친구여, 네가 진지하게 지혜를 찾고 정직하게 진실을 사랑하는 자임을 내가 알아보노라. 그러므로 재산을 책임지는 데 상관되는 네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내 소견을 펼칠 생각이 있노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조언을 요청했기 때문이라. 이 충고를 주면서 나는 어느 다른 부자의 재산에 아랑곳하지 않노라. 오직 너에게, 너 한 사람을 안내하기 위하여 조언하노라. 정직하게 네 재산을 신탁(信託)으로 여기기를 바라고 쌓은 재산을 지혜롭고 유능하게 관리하는 자가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재산의 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할 것을 너에게

조언하고자 하노라. 어디로부터 이 재산이 왔는가 스스로 묻고 최선을 다하여 정직한 대답을 찾으라. 너의 큰 재산의 근원을 연구하는 데 도움되는 것으로서 물질 재산을 쌓는 다음 열 가지 다른 방법을 기억할 것을 제안하리라:

132:5.3 (1462.4) “1. 물려받은 재산 — 부모, 그리고 다른 조상으로부터 얻은 재산.

132:5.4 (1462.5) “2. 발견한 재산 — 대지(大地)의 개발되지 않은 자원으로부터 얻은 재산.

132:5.5 (1462.6) “3. 상업 재산 — 물질 상품의 교환과 물물 교역에서 정당한 이익으로 얻은 재산.

132:5.6 (1462.7) “4. 부당한 재산 — 사람의 동료들을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노예로 만들어서 얻은 재산.

132:5.7 (1463.1) “5. 이자(利子)로 얻은 재산 —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공평하고 정당하게 버는 가능성에서 생기는 소득.

132:5.8 (1463.2) “6. 천재(天才)로 얻은 재산 — 인간 정신의 창조하고 발명하는 자질에 대한 보상에서 생기는 재산.

132:5.9 (1463.3) “7. 우연히 얻은 재산 — 동료의 관대함에서 생기거나 생활 형편에 기원이 있는 재산.

132:5.10 (1463.4) “8. 훔친 재산 — 불공평 · 부정직 · 도둑질 또는 사기(詐欺)로 확보한 재산.

132:5.11 (1463.5) “9. 신탁(信託) 기금 — 현재나 미래에 어떤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동료들이 네 손에 맡긴 재산.

132:5.12 (1463.6) “10. 벌어들인 재산 — 스스로 몸소 수고하여 직접 얻은 재산, 바로 너의 정신과 몸이 나날이 노력하여 얻는 공평하고 마땅한 보상.

132:5.13 (1463.7) “그래서 친구여,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너의 큰 재산을 충실하고 정당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재산(財産)을 이 열 가지 큰 부문으로 대강 나누고, 정의 · 공평 · 공정, 그리고 참된 효율성의 법칙을 지혜롭고 정직하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각 부분을 처분하도록 진행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필사 인생의 불행한 상황에서 고생하는 자의 곤경을 자비롭게 사심 없이 배려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따금 실수한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리라. 물질적 상황이 공평하고 정당한가 솔직하게 의심이 들 때, 곤궁한 자에게 유리하게, 부당한 시련으로 불행을 당한 자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리라.”

132:5.14 (1463.8) 몇 시간 동안 이 문제들을 토론한 뒤에, 이어서 더욱 자세한 지침을 달라는 부자의 요청에 응답하여, **예수**는 계속 확대하여 조언하였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다: “재산을 다루는 태도에 관하여 더 제안하지만, 오직 너에게 주는 것으로서 너 개인을 안내하기 위하여, 내 조언을 받으라고 훈계하고자 하노라. 질문하는 친구인 너에게 오직 내 생각을 이르노라. 다른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명령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부탁하노라. 나는 이렇게 너에게 조언하겠노라:

132:5.15 (1463.9) “1. 너는 물려받은 재산의 관리자로서 그 근원을 고려해야 하느니라. 지금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공평한 보수를 뺀 뒤에 정당한 재산을 뒤잇는 세대들에게 정직하게 전달할 때, 너는 지난 세대를 대표할 도덕적 책임이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선조들이 부당하게 재산을 모으면서 생긴 부정직이나 불의를 계속할 의무가 없느니라. 네가 물려받은 중에 사기(詐欺)로 얻거나 불공평하게 얻은 것으로 판명된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올바르게, 관대하게 배상하는가 확신이 서는 대로 지불해도 좋으니라. 물려받은 나머지

정당한 재산은 공평하게 쓰고 한 세대의 관리자로서, 다른 세대를 위하여 안전하게 전달해도 좋으니라. 재산을 후계자들에게 물려줄 때 지혜롭게 구별하고 건전하게 판단함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느니라.

132:5.16 (1463.10) “2. 발견의 결과로서 부(富)를 누리는 자는 누구나 사람이 땅에서 잠시만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따라서 가능한 최다수의 동료 인간에게 도움되는 방법으로 이 발견한 재산을 나누기 위하여 적절히 준비해야 하느니라. 발견한 자는 그 노력에 대하여 모든 보상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자연이 쌓아 둔 자원을 발굴하여 얻을 모든 이익과 축복을 주제넘게 이기적으로 주장해서도 안 되느니라.

132:5.17 (1464.1) “3. 사람들이 상업과 물물 교환으로 세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한 저희는 공평하고 정당한 이익을 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장사하는 사람마다 제공한 수고에 대하여 임금을 받아 마땅하고 상인(商人)은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세상의 조직된 사업에서, 공정하게 장사하고 동료들을 정직하게 대우하는 것은 이익이 남는 많은 다른 종류의 재산을 창조하며, 이 재산의 모든 근원은 가장 높은 정의 · 정직 ·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판정되어야 하느니라. 정직한 상인은 비슷한 거래에서 그가 동료 상인에게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이익 남기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 종류의 재산은 큰 규모로 사업을 운영했을 때 개인이 번 소득과 동일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쌓은 그러한 재산은 동시에 그 재산을 나중에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하여 상당한 권리를 그 소유자에게 부여하느니라.

132:5.18 (1464.2) “4. **하나님**을 알고 신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필사자는 누구나 돈으로 남을 억압함으로 품위를 떨어뜨릴 수 없느니라. 고귀한 사람은 아무도 육체를 입은 형제를 노예로 만들거나 부당하게

착취함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재력을 쌓으려고 애쓰지 아니하리라. 억압 받는 필사 인간의 피땀을 쥐어짠 결과로 생긴 재산은 도덕적 저주요 영적 낙인이라. 모든 그러한 재산은 이렇게 빼앗긴 자에게, 아니면 저희의 자식과 그 자손에게 돌려주어야 하느니라. 지속하는 문명은 노동자에게서 임금을 속여 빼앗는 관습을 토대로 하여 세워질 수 없느니라.

132:5.19 (1464.3) “5. 정직하게 얻은 재산은 이자를 받아 마땅하니라.

사람들이 빌리고 빌려주는 한, 빌려준 자본이 정당한 재산이라면 정당한 이자를 거두어도 좋으니라. 이자를 청구하기 전에, 먼저 너의 자본을 깨끗이 하여라. 품위를 떨어뜨려 고리로 빌려주는 습관에 빠질 정도로 지나치게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자가 되지 말지니라. 재력을 이용하여, 허덕이는 동료들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 이기심에 빠지지 말라. 재정적 곤경에 처한 형제로부터 고리(高利)를 받아내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

132:5.20 (1464.4) “6. 천재(天才)가 넘쳐흘러 어찌다가 재산을 확보한다면, 너의 재산이 발명하는 자질의 보상으로 생긴 것이라면 그러한 보상에서 부당한 몫을 주장하지 말라. 천재는 조상과 후손에게 무언가 빚지고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민족과 나라에게, 그리고 새로운 발명이 생긴 환경에 빚지고 있느니라.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으로서 일하고 발명품을 만들어 냈음을 기억해야 하느니라. 재산 증가분 전부를 천재로부터 빼앗는 것은 똑같이 부당하리라.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 모든 문제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법규를 사람이 정하는 것은 언제라도 불가능하리라. 먼저 사람이 형제임을 깨닫고,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대로 네가 형제에게 해주기를 정직하게 바라면, 정의 · 정직 · 공평을 찾으라는 평범한 명령은 모든

되풀이되는 경제적 보상과 사회 정의(正義)의 문제를 정당하게,
그리고 치우치지 않게 해결하도록 너를 안내하리라.

132:5.21 (1464.5) “7. 재산의 관리로부터 정당하고 합법적인 보수를 버는
것을 제외하고, 누구도 때 맞게 행운으로 손에 굴러들어온 재산을
개인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느니라. 우연히 생긴 재산은 사람의 사회
집단이나 경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할 신탁(信託)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얼마큼 보아야 하느니라. 그런 재산의 소유자에게
굴러들어온 그러한 자원의 지혜롭고 효과적인 분배를 결정하는 데 큰
발언권을 주어야 하느니라. 문명화된 사람은 그가 관리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개인의 사유(私有) 재산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132:5.22 (1465.1) “8. 모은 돈의 어느 부분이라도 알면서 사기(詐欺) 행위로
얻었거나, 재산의 어떤 부분이라도 정직하지 않은 업무 처리나
불공평한 방법으로 쌓아 왔거나, 재산이 동료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결과라면, 그릇되게 얻은 이 모든 이익을 정당한 주인에게 서둘러
돌려주라. 충분히 손해를 배상하고 이처럼 네 재산 중에서 정직하지
않은 부(富)를 모두 깨끗이 없앨지어다.

132:5.23 (1465.2) “9. 한 사람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는 것은 엄숙하고 신성한 책임이라. 그러한 신탁 재산을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말라. 어떤 신탁 재산 중에서도, 어떤
정직한 사람이라도 허락할 만큼만 네가 가지라.

132:5.24 (1465.3) “10. 너의 재산 중에 자신의 정신과 육체적 노력이 번 것을
대표하는 부분은 — 네 일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실행되었다면 —
참으로 네 것이라. 아무도 그러한 재산을 네가 소유하고 너의 생각대로

처분할 권리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하지만 이 권리의 행사(行事)는 동료들에게 해를 미치지 않아야 하느니라.”

132:5.25 (1465.4) **예수**가 상담을 마쳤을 때, 이 부유한 **로마** 사람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약속하였다: “좋은 친구여, 당신은 대단히 지혜롭고 선한 사람인 것을 내가 깨닫나이다. 당신이 조언한 대로 내일 모든 재산의 관리를 시작하리이다.”

6. 사회 봉사

132:6.1 (1465.5) 또한 여기 **로마**에서 한 우주의 **창조자**가 길 잃은 아이를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에게 돌려주느라고 몇 시간을 보낸 감동적 사건이 일어났다. 이 어린 소년은 집을 떠나서 헤매었고, 슬피 울고 있는 것을 **예수**가 발견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와 **가니드**는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몰두했다. **가니드**는 **예수**가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다: “너도 알다시피, **가니드**야, 대부분의 인간은 길을 잃은 아이와 같으니라. 저희는 두려움에 울고 슬픔에 빠져 많은 시간을 보내느니라. 이 아이가 집에서 조금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이, 진실로 저희는 안전하고 안정된 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느니라. 진실의 길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확신을 가진 자는 모두, 생활의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동료들을 안내하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특권(特權)으로 여겨야 하느니라.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되찾아주는 이 수고를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즐기지 아니하였느냐? 마찬가지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최상의 만족을 맛보느니라.” 그날 이후로, 사는 날까지, **가니드**는 집을 찾아줄까 하여 길 잃은 아이들을 줄곧 주의하여 보았다.

132:6.2 (1465.6) 다섯 아이를 가진 과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이전에 사고로 죽었다. **예수**는 **가니드**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사고로 잃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들은 이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로하려고 여러 번 갔고, 한편 **가니드**는 먹을 것과 옷가지를 마련하려고 아버지에게 돈을 구하였다. 그들은 맏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어서 그 가족을 보살피는 일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

132:6.3 (1465.7) 그날 밤 **고노드**는 이 경험담을 들으면서 **예수**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나는 아들을 학자나 사업가로 만들려고 궁리하는데 이제 당신은 그를 철학자나 박애가로 만들기 시작하는구려.” **예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도 우리는 그를 모두 네 가지 인물로 만들 것이외다. 그러면 인간의 멜로디를 알아듣는 귀가 한 음정이 아니라 네 음정을 들을 수 있으리니, **가니드**가 인생에서 네 배나 만족할 수 있으리이다.” 그 다음에 **고노드**가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철학자인 줄 내가 깨닫소. 당신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책을 써야 하오.” **예수**는 대답했다: “책이 아니라 — 내 사명은 이 세대에, 그리고 모든 세대를 위하여 일생을 사는 것이외다. 나는 —” 그러나 멈추어서 **가니드**에게 일렀다, “아이야, 잘 때가 되었구나.”

7. 로마 근처에서 한 여행

132:7.1 (1466.1) **예수**와 **고노드**와 **가니드**는 **로마**를 벗어나, 근처의 지역에서 흥미 있는 장소들로 다섯 번 여행하였다. 북부 **이탈리아**의 호수들을 찾아보는 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기가 불가능한 것에 관하여, **예수**는 **가니드**와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호수로 여행하는 길에 지각(知覺) 없는 한 이방인을 어쩌다가 만났다. **예수**가 영적 질문을 하는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대화를 하면서 사람을 끌어내는 평상시의 버릇을 따르지 않아서, **가니드**는 놀랐다. 어쩌서 선생이 이 이방인에게 조금도 흥미를 보이지 않는가 **가니드**가 물었을 때, **예수**는 대답했다:

132:7.2 (1466.2) “**가니드**야, 그 사람은 진실을 갈망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불만이 없었느니라. 도움을 요청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마음의 눈은 혼을 위하여 빛을 받으려고 열려 있지 않았는지라. 그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준비가 되지 않았도다. 인생의 시련과 곤경으로 인하여 지혜와 상급의 배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려면 그에게 시간을 더 주어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도록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생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우리의 삶에 무척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묻게 되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느니라. 마음에 내켜 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의 기쁨으로 이끌 수 없도다. 사는 체험의 결과로서 사람이 진실을 갈망해야 하느니라.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러한 동료 필사자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수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기 전에, 신성한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 접촉한 결과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할 일은 생활 속에서 **아버지**가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아버지**를 보고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방법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에 관하여 더 많이 알려고 우리에게 도움을 부탁하리라.”

132:7.3 (1466.3) **스위스**를 방문하는 길에, 산 속에서, **예수**는 하루 종일 불교에 대하여 그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이야기했다. 여러 번 **가니드**는 **예수**에게 **부다**에 대하여 직접 물은 적이 있었지만 언제나 다소 분명치 않은 대답을 받았다. 이제,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부다**에 관해 솔직하게 물었고 솔직한 대답을 얻었다. **고노드**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부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소이다.”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132:7.4 (1466.4) “당신이 아는 **부다**는 불교보다 훨씬 나았소이다. **부다**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 민족에게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고아 선지자였소이다. 그 말은 정말로 영적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일찍부터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외다. 그의 체험은 비극이었소이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살고 가르치려고 애썼지만,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였소이다. **부다**는 안전한 항구 바로 앞까지, 사람을 구원하는 피난처 입구(入口) 바로 앞까지 구원의 배를 안내하였고 거기서 잘못된 해도(海圖) 때문에, 좋은 배가 땅으로 올라가 버렸소이다. 거기서 배는 이 여러 세대 동안, 움직이지 않고 거의 희망 없이 버려졌소이다. 그 배 위에 당신의 민족 중에 많은 사람이 여태까지 남아 있었소이다. 쉴 수 있는 안전한 바다에서 소리쳐 부를 만큼 가까이 살지만, 선한 **부다**의 귀중한 배가 항구 바로 바깥에서 좌초하는 불행을 만났기 때문에 저희는 항구로 들어가려 하지 않소이다. 불교를 믿는 민족들은 그 선지자가 만든 철학의 배를 버리고 그의 고귀한 정신을 붙잡지 않으면 이 항구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이다. 당신의 민족이 **부다**의 정신에 충실한 채로 있었다면,

당신은 영적 평온, 혼의 휴식, 구원의 확신이 있는 피난처로 들어간 지 오래 되었으리이다.

132:7.5 (1467.1) “보시오, **고노드**여, **부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머리로 **하나님**을 뚜렷하게 깨닫지 못했소이다. **유대인**은 머리로 **하나님**을 깨달았지만 크게 보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소이다. 오늘날, 불교도는 **하나님** 없는 철학 속에서 발버둥치고, 한편 내 민족은 생명과 자유의 철학, 유익한 철학(哲學)이 없이, 불쌍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노예가 되었소이다. 당신들은 **하나님** 없는 철학을 가졌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가졌지만 그와 관련된 생활 철학이, 크게 보아서 없소이다. **하나님**이 영이고 **아버지**인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가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높이기 위해서 가져야 할 도덕적 에너지와 영적 추진력을 **부다**는 그의 가르침 속에서 마련하지 못했소이다.”

132:7.6 (1467.2) 그때 **가니드**가 외쳤다: “선생이여, 당신과 내가 새 종교를, 인도를 위해서 충분히 좋고 **로마**를 위해서 충분히 큰 종교를 만들시다. 아마도 우리가 **유대인**에게 그 종교를 **야웨**와 바꿀 수 있으리이다.” **예수**는 대답했다. “**가니드**야, 종교는 만들어지지 않느니라. 사람의 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성장하며, 한편 **하나님**을 동료에게 드러내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啓示)는 땅에 번쩍 나타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이 예언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아듣지 못했다.

132:7.7 (1467.3) 그날 밤, 그들이 잠자리에 들어간 뒤에, **가니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마침내 말했다, “아세요, 아버지, 나는 때때로 **요수아**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나이다.” 아버지는 잠이 오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아들아, 다른 이도 있느니라 —”

132:7.8 (1467.4) 이날부터 남은 수명이 다하기까지, **가니드**는 자신의 종교를 계속 발전시켰다. 머리 속에서 그는 **예수**의 넓은 마음, 공평하고 관대함에 힘차게 감동을 받았다. 철학과 종교에 관하여 그들이 무슨 토론을 하더라도 이 소년은 결코 분개하는 느낌이나 적대하는 반응을 체험하지 않았다.

132:7.9 (1467.5) 천상(天上)의 지적 존재들이 얼마나 대단한 장면을 바라보는가. 인도인 소년이 한 우주의 **창조자**에게 새 종교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이 광경을! 비록 그 젊은이는 알지 못했어도, 바로 그때 거기서 새롭고 영구한 종교 — 구원의 길,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새 길 — 을 만들고 있었다. 그 소년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일을 실제로 하고 있었다. 지난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늘 이와 같다. 영적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고서, 깨우치고 숙고하는 인간이 상상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심 없이 하고 싶은 바로 그 일, 그리고 되고 싶은 바로 그 목표는 **아버지**의 뜻을 신성하게 행하려는 필사자가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눈에 뜨일 정도로 창조력을 가지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난다.